27, April, 2026 Vol. 116

| Bi-Weekly |

신영 ESG

"GHG 탄소 회계기준 변화...기업의 ESG전략에 큰 변화 가져올 것"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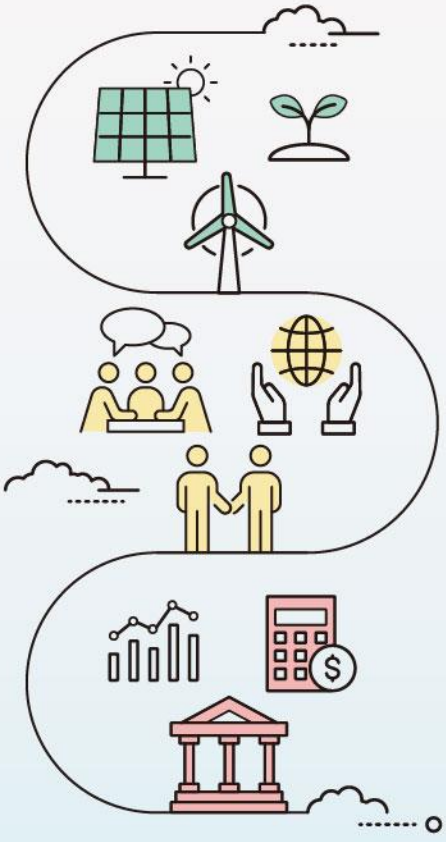
ESG essay

신영's View

ESG 탐방 노트
SK 이노베이션

ESG ETF 따라잡기
VanEck Copper and Green Metals ETF (EMET)

ESG News Clipping



ESG essay

ESG & 글로벌 유동성 담당 오광영 oh.gwang-young@shinyoung.com

GHG탄소회계 기준 변화...기업의 ESG전략에 큰 변화 가져올 것

Scope 1·2·3 외에 추가 항목 보고...다층 구조의 보고로 전환 추진

GHG프로토콜, 지난 달 기존 탄소회계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새로운 기준안을 발표하고 5월말까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진행한 후 내년에 정식 표준(안) 발표 예정

지난 달 30일 전세계 기업 온실가스 배출 관련 보고시 기준이 되는 글로벌 탄소회계 기준을 관리하는 '온실가스 프로토콜(GHG Protocol, 이후 GHG프로토콜)'이 현행 탄소회계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는 새로운 AMI (Actions and Market Instruments)' 백서를 발표하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에 들어감. GHG프로토콜은 오는 5월 말까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2027년에 정식 표준(안)을 공개할 예정임. 또한 국제표준화기구(ISO) 전문가들도 논의에 참여하면서, 향후 글로벌 기준 통합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음.

도표 1. 새로운 AMI에 대한 의견 수렴중인 GHG 프로토콜

자료: GHG 프로토콜,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백서에 따르면 기존의 Scope 1·2·3뿐만 아니라 기존 보다 크게 확대된 새로운 체계로의 전환을 예고함 → 기존의 'Scope 중심'에서 '활동 중심'으로 전환되게 됨

이번에 발표된 백서에서는 기존의 Scope 1·2·3뿐만 아니라 탄소배출권, 공급망 투자, 저탄소 제품 판매 등을 포괄하는 기존 보다 크게 확대된 새로운 체계로의 전환을 예고하고 있음. 특히 이를 통해서 기존의 'Scope 중심'에서 '활동 중심'으로 전환 예정임. 다시 말해 기존에 단순히 '얼마나 배출 했는가'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가'까지 평가하는 구조로 변화하게 되는 것임. 특히 공급망 투자도 '배출 감축'으로 인정받는 방안은 그동안 기업들이 요구해온 '공급망 감축 활동의 유연성'을 대폭 수용하겠다는 취지로, 공급망 내 탈탄소화 투자를 배출량 보고서에 공식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파격적인 개편안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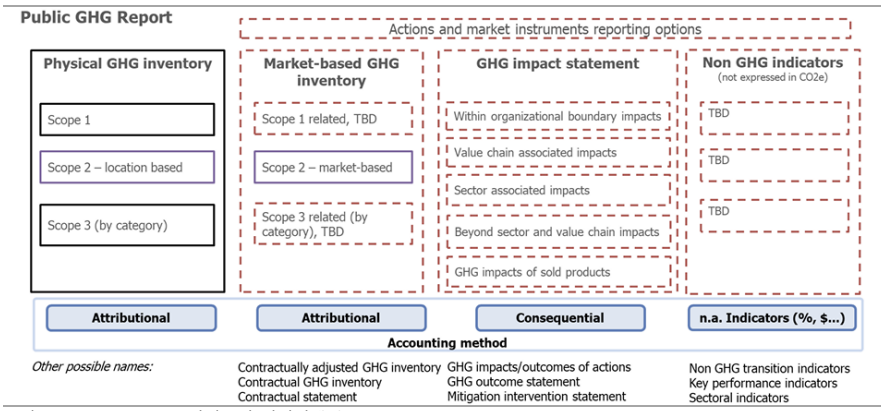
공급망 내 탈탄소화 투자를 배출량 보고서에 공식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파격적인 개편안임

금번에 발표된 백서는 기존의 물리적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기 위한 다중 재무제표 기반 온실가스 보고 체계를 제안하고 있

음. 백서에 따르면 기존 Scope 1, Scope 2, Scope 3 보고 체계를 확장해 배출 보고를 4개의 명세서(statement)로 확대하는 구조를 제안함. 각 명세서는 ▲기업 직접 배출량 ▲공급망 관련 활동(투자) ▲탄소배출권(credits) 보유 및 사용 ▲저탄소 제품 판매 등과 같은 비배출 지표 등을 각각 포착하도록 설계됨. 보고 체계가 4개의 명세서로 나뉘어 기업의 배출과 활동을 다층적으로 기록함으로써, 기존 단일 지표 중심 보고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시도로 해석됨.

다만 새로운 재무제표 중 어떤 것이 필수 항목인지 선택 항목인지에 대한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도표 2. 현재 고려중인 보고서 양식



자료: GHG 프로토콜,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민간 이니셔티브인 AIM 플랫폼, 기업이 공급망 탈탄소화 관련 투자 효과를 반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초기 버전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또한 GHG프로토콜의 백서 발표 이후 이와 관련해 민간 이니셔티브인 AIM 플랫폼(Advanced and Indirect Mitigation Platform)은 기업이 공급망 탈탄소화 관련 투자 효과를 반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초기 버전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AIM 플랫폼은 공급망 탈탄소 투자 효과를 측정·보고하기 위한 방법론 개발을 목적으로 주요 기후·시장·인증 기관들이 공동으로 구성한 협력체임. 이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인셋(Inset)'으로 불리는 공급망 내 탄소 감축인데 이는 기업이 직접 배출을 줄이지 않더라도, 공급망 또는 관련 산업에서의 감축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그 효과를 자사의 배출량 계정에 반영해 감축 성과로 일부 인정받는 방식임. 가이드라인은 기업이 공급망 탈탄소화 프로젝트에 투자한 성과를 물리적 배출 인벤토리와 분리된 명세서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설계됨.

GHG 프로토콜이 제안한 구조의 핵심은 기존 체계를 유지하면서 보고 범위를 확장하는 데 있음 →Scope3 관련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GHG 프로토콜이 제안한 구조의 핵심은 기존 체계를 유지하면서 보고 범위를 확장하는 데 있음. 물리적 배출량을 집계하는 Scope 1·2·3 인벤토리는 그대로 두고, 그 위에 시장 기반 활동, 공급망 개입 효과, 기타 지표 등을 별도로 기록하는 항목을 추가하는 방식이기 때문임. 이 같은 변화는 공

급망 배출(Scope 3)이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공급망 배출을 기업이 직접 통제하거나 정밀하게 측정하기 어렵고, 관련 투자나 구매 활동이 기존 회계에 반영되지 않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GHG 프로토콜, Scope 3 표준 개정 방향을 담은 중간보고서도 공개 →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은 Scope3 전체 배출량의 최소 95%를 산정해 보고해야만 표준 준수로 인정받게 됨

한편 GHG프로토콜은 백서 발표 이후 다음 날인 31일, Scope 3 표준 개정 방향을 담은 중간보고서도 공개함. 그동안 GHG 프로토콜은 기업이 '모든 Scope3 배출을 산정하고 제외 항목을 설명하라'고만 요구했을 뿐, 구체적인 수치 기준은 없었음. 이에 데이터 확보가 어려운 카테고리를 제외하더라도 형식상으로는 기준 준수 충족이 가능했음.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은 Scope3 전체 배출량의 최소 95%를 산정해 보고해야만 표준 준수로 인정받게 됨. 또한 나머지 5%이하는 제외가 허용되는데, 이마저도 배출 규모가 작은 항목에 한정됨. 이에 기존에 가능했던 주요 배출을 제외한 채 보고하는 방식은 불가능해 질 것임. 향후 이에 대비해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임.

이러한 기준 변화는 기업의 ESG 전략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임 → 기업이 배출량을 보고하고 감축 활동을 인정받는 방식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 →반면, 기준이 복잡해지면서 '그린 워싱' 논란이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함

금번에 발표된 백서와 같이 탄소회계 기준이 변화될 경우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글로벌 기업들의 ESG 전략일 것임. 이번 개정 논의는 기업이 배출량을 보고하고 감축 활동을 인정받는 방식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임. 우선 기업들은 직접 감축 외에도 공급망 투자나 외부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목표 달성 경로를 다양화할 수 있게 됨. 백서에 따르면 저탄소 원자재 구매나 재생에너지 계약은 시장 기반 항목에, 공급망 탈탄소 투자나 프로젝트 개입에 따른 배출 변화는 영향 항목에 반영할 수 있게 되었음. 기타 지표에는 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저탄소 제품 판매 비중이나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 등이 반영 가능함. 반면, 기준이 복잡해지면서 '그린 워싱' 논란이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함. 계산 방식이 복잡해질수록 해석 차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임. 별도 항목으로 감축 효과를 기록하는 구조는 직접 배출과 간접 투자 성과를 구분해 보여주는 장점이 있지만, 적용 방식에 따라 그린 워싱 논란이 확대될 여지도 존재함.

또한 탄소배출권 시장에도 영향이 예상됨. 기존에는 외부 크레딧 활용이 제한적으로 인정됐지만, 새로운 기준에서는 보다 폭넓게 반영될 수 있기 때문임. VCM 시장의 베라는 자사 Scope 3 프로그램을 AIM 기준과의 호환성을 고려해 개발 중이라고 밝혔고, 골드스탠다드는 공개 지지 입장을 표명한 상태임.

글로벌 기준 강화로 인해 기업은 공급망 전체에 대한 데이터 수집 프로세스 구축과 이에 따른 협력사와의 긴밀한 공조가 필수적이 될 것임을 명심하고 사전에 준비에 힘을 쏟아야 할 것임

이처럼 새로운 글로벌 탄소회계 기준 도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준비 정도에 따라 기업에게는 기회와 위험으로 작용할 것임. 특히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글로벌 기준을 충족하려면 기업은 공급망 전체에 대한 데이터 수집 프로세스 구축과 이에 따른 협력사와의 긴밀한 공조가 필수적이 될 것임을 명심하고 사전에 준비에 힘을 쏟아야 할 것임. 또한 정부는 향후 이와 같은 제도가 시행된다면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하고 지원해야 할 것임.

ESG 이벤트 & 신영's View

폭스바겐, EV 8% 줄었는데도 전면 배치…전동화 전략 안 꺾었다

- 폭스바겐그룹이 2026년 1분기 글로벌 BEV 판매량 8% 감소에도 불구하고, 유럽 시장의 견조한 성장세와 시장 점유율 확대를 바탕으로 전동화 중심의 그룹 핵심 전략 지속
- 중국 내 보조금 종료 및 미국의 관세 강화 등 외부 정책 변수로 인한 단기 실적 부진에 대응하여, 전기 모드 주행거리가 대폭 개선된 2세대 PHEV 라인업을 강화하는 전략적 이중화 체계 가동

Comments

- IRA 종료 여파로 미국 EV 시장은 부진한 상황이나 프랑스, 독일 등의 보조금 지원에 힘입어 유럽 BEV 시장은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
- 이에 글로벌 판매의 40% 내외를 유럽에서 기록하는 폭스바겐도 유럽에서는 전동화 전략을 지속 추진 중

– Analyst 문용권

가성비 배터리, 전 세계 전력망 삼킨다...비용 75% 급락에 '에너지판' 뒤집혀

- 배터리 제조 원가의 급격한 하락과 중동 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변동성 확대가 맞물리며, ESS가 전력망의 보조 수단을 넘어 핵심 인프라로 급부상함에 따라 2026년 글로벌 설치량 급증 전망
- 중국발 공급 과잉에 따른 가격 하락이 ESS 대중화를 견인하는 가운데, 유럽의 용량 5배 증설 계획 및 장주기 배터리 기술 혁신이 결합하며 전력 시스템 운영 방식의 구조적 대전환 본격화

Comments

- 이란 전쟁 및 고유가 환경 속 재생 에너지 공감대가 강화되고 있으며 ESS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반영되는 중
- 비중국산 밸류체인을 배제하는 환경이 펼쳐지고 있으며, 동시에 즉각적인 전력 수요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ESS 수요는 구조적으로 증가할 개연성이 높음
- 이 과정에서 국내 배터리 밸류체인들의 낙수 효과 기대감은 지속될 전망

– Analyst 박진수

시민 75% "글로벌 평균 이상 감축해야"...감축경로는 조기감축 쏠림

-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 4차례 숙의토론과 1·2차 설문조사를 진행 결과 공유
- 감축목표 '상향 압력' 확인…글로벌 평균 39.1%·상회 35.8%
- 조기감축 77.9% 선택…속도 앞당기고 기업 규제·지원 병행 요구
- "답정너 공론화" 비판…설문·발제·정보 편향 도마 위

Comments

- 공론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제1항이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추진되는 후속 절차임
- 1차 조사보다 2차 조사에서 상향 압력 확인 → 미래세대 대표단에서는 상향 압력이 더욱 뚜렷
- 공론화 공정성 도마 위…유도 설문·편향 발제·정보 누락 지적
- 조기 감축안 통과시 미래세대 부담이 줄고 특히 기후위기 대응 효과 조기 확보 가능하다는 점은 긍정적

– Analyst 오광영

ESG 탐방노트

에너지/화학 담당 신홍주 23278@shinyoung.com

SK이노베이션(096770.KS)

매수(TP 140,000원)

ESG 안정적 기반 위 체계 구축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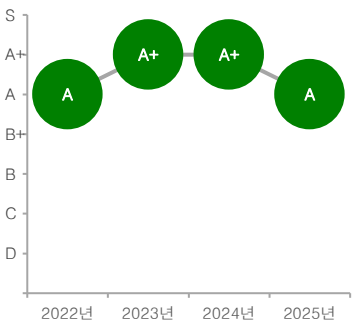
현재주가(04/24) 132,900원

ESG 등급 현황

(평가기관)	ESG	E	S	G
KCGS	A	B+	A+	A+
Bloomberg	44.80	41.40	55.20	51.70
Sustainalytics	–	–	–	–

주: KCGS : S~D 7등급
Bloomberg: 100 만점 기준
Sustainalytics 100~0 높을수록 상위권

ESG 등급 변화 (KCGS)



Key Data (기준일: 2026. 04. 24)

시가총액(억원)	225,607
배당수익률(26F,%)	0.0
외국인지분율(%)	13.9
주요주주 지분율(%)	
SK 외 12인	52.1%
국민연금공단	6.0%

Company Performance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23.1	-24.9	-16.5	-11.2
KOSPI대비 상대수익률	-20.4	-25.2	-15.1	-8.0

Environment

구 분	단위	2023	2024
온실가스 배출량	천 tCO2eq	7,707	10,436
폐기물 발생량	톤	1,488	3,093
환경관련 투자비	억원	–	–
환경경영 인증	ISO 14001		
환경경영 조직	전략ESG 위원회		

Social

구 분	단위	2023	2024
안전사고 재해율	%	0.9	0.3
기간제 근로자 비율	%	2.9	3.6
여성 근로자 비율	%	22.7	25.0
사회공헌 지출액	억원	505	272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	상생협력기금 운용 및 지원		

Governance

구 분	내 용
주주총회	4 주전 소집공고 실시
전자투표제	실시
집중투표제	미실시
배당	미실시
이사회 운영 실적	14 회, 사외이사 참석률 98.8%

ESG 관련 최신 활동

SK이노 E&S, 인천공항에 세계 첫 액화수소 복합기지 준공
(이데일리, 26.01.29)

- SK이노베이션은 자회사 하이버스를 통해 인천공항에 세계 최초 '수소교통 복합기지'를 구축하며 수소 모빌리티 인프라 확장
- 액화수소 충전소 운영과 함께 생산·운송 체계까지 확보해 공항 교통을 수소 중심으로 전환하는 핵심 허브 역할을 추진
- SK이노베이션은 인천 액화수소플랜트와 연계해 안정적이고 대규모 수소 공급망을 구축하며 친환경 교통 전환을 가속화

SK이노베이션의 '해피드림'...10년간 임직원 1만5000여 명, 발달장애 아동 사회적응 도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26.01.12)

- SK이노베이션은 임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 '해피드림'을 통해 발달장애 아동의 사회 적응과 자립 역량 강화 지원
- 2016년 시작 이후 누적 15000명 이상의 임직원과 27000명 이상의 아동이 참여하며 문화·체육 활동 중심의 참여형 나눔 모델로 자리잡음
- 특히 급여 1% 기부와 스포츠 프로그램(핸드볼 교실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과 정서적 교류를 확대

SK이노, 협력사 80곳에 상생기금 30억원 전달
(디일렉, 26.01.22)

- SK이노베이션은 임직원 기부와 회사 매칭으로 조성한 3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협력사 80곳에 전달
- 2017년 시작된 '1% 행복나눔기금'은 누적 500억원을 넘었으며, 이 중 약 290억원이 협력사 지원에 사용되는 등 장기적 상생 모델을 이어가는 중
- 해당 기금은 협력사 직원 복지뿐 아니라 지역사회 취약계층 지원에도 활용되며 ESG 경영 실천을 강화

ESG history

연 혁	내 용
2020년	[E] 기후변화 이니셔티브 'Climate Action 100+' 참여
	[G] 이사회 산하 ESG 위원회 신설로 거버넌스 강화
2021년	[ESG] 2050년 이전 Net Zero 달성 선언 및 Net Zero 특별 보고서 발표
	[ESG]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시행하는 ESG 종합평가에서 전년보다 한 단계 상승한 A+ 등급 획득
2022년	[S] 협력사 ESG 진단 및 평가 실시하여 맞춤형 교육/컨설팅 지원
	[ESG] 글로벌 ESG 평가기관 CDP로부터 '탄소경영 섹터 아너스' 에너지&유틸리티 부문 수상
	[ESG] 창립 60주년 행사에서 'All Time Net Zero' 비전 선포
2023년	[S] 울산 Complex 안전보건 경영의 일환으로, 매월 안전위원회 운영 및 중대재해 근절활동 실시
	[E] 계열사(SK온, SKIET) 글로벌 사업장에 재생에너지 전력 도입하며 탄소 감축 노력 지속
	[G] 각 사업 회사에 공정거래 자율준수 관리자(CCO)를 선임하여 컴플라이언스 체계 강화
2024년	[E] RoHS(유해물질 제한 지침) 국제공인시험기관 자격 인증 획득
	[ESG] MSCI ESG 평가에서 'AA' 등급 획득
	[G] 이사회 산하 전략 위원회와 ESG 위원회를 통합하여 거버넌스 강화
2025년	[E] 2030년까지 베트남에서 축구장 420개 규모 맹그로브 숲 복원사업 추진
	[ESG] MSCI ESG 평가에서 전년보다 한 단계 상승하여 최고등급인 'AAA' 등급 획득

에너지 종합 회사로서의 미래를 위한 ESG 경영 활동

SK이노베이션은 1962년 국내 최초의 정유회사로 출범한 이후, 석유·화학·LNG·전력·배터리 등 에너지 전 밸류체인을 포괄하는 종합 에너지 기업으로 성장. 2024년 SK E&S와의 합병을 통해 정유·화학 중심의 사업구조에서 저탄소 에너지 중심 포트폴리오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음.

SK이노베이션은 2050년 이전 Net Zero 달성 로드맵을 수립. 이를 토대로 연료전환·에너지 효율 개선·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탄소 배출량 감축을 추진 중. 이에 더해 재활용 납사 도입·폐플라스틱 리사이클링·SAF(지속가능항공유) 생산 등 순환경제 기반의 친환경 사업도 확대 중. 동사는 이러한 활동을 이사회 산하 전략·ESG위원회를 중심으로 국제 가이드라인(GRI, TCFD, ESRS 등)을 준수하여 공시하고 있음. 이와 함께 협력사 ESG 역량 강화, 탄소중립 기술 R&D, 구성원 Reskilling&Upskilling을 통한 인적자본 혁신 등 이해관계자 전반을 아우르는 ESG 경영을 실천 중. 동사는 단순한 친환경 기조 순응을 넘어 '지속가능한 에너지 생태계' 구축이라는 기업 사명을 구체화하고 있음.

SUPEX 2030을 통한 지속가능성장 로드맵

'SUPEX 2030'은 SK이노베이션이 급변하는 에너지 패러다임과 글로벌 ESG 요구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중장기 비전이자 실행 로드맵임. 기존 정유·화학 중심의 사업을 LNG·전력·신재생·배터리 등으로 다각화해, 질적 성장과 사회적 책임을 겸비한 SUPEX Company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함.

SUPEX 2030은 두 단계의 전략으로 구성. 첫번째(2024~2026)는 '자강(自强)' 단계로, 각 사업부가 독립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손익·재무·사업구조의 내실을 다지는 데 중점을 둠. 두번째(2027~2029)는 '결집(結集)' 단계로, 각 사업의 자강력을 기반으로 협업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창출하고자 함.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SK이노베이션은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R&D, 시너지, Shared Service를 요소로 하는 'Enabler 실행 지원 체계'를 구축하며, 계열사의 지속가능성장 전략을 지원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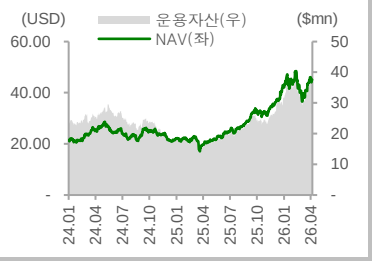
ESG & 글로벌 유동성 담당 오광영 oh.gwang-young@shinyoung.com

VanEck Copper and Green Metals ETF (EMET)

Key Facts	
상장일	2021/11/09
기초지수	MVIS Global Clean-Tech Metals Index
구성종목수	62
순자산총액 (백만달러)	36.04
시장가격(USD)	45.11
NAV(USD)	45.05
총보수(%)	0.61
운용사	Van Eck

Top Holdings (기준일: 2026.04.22)	
Freeport-Mcmoran Inc	8.74%
Glencore Plc	8.29%
Anglo American Plc	7.44%
Grupo Mexico Sab De Cv	6.37%
Teck Resources Ltd	5.40%
Antofagasta Plc	3.95%
Albemarle Corp	3.46%
Southern Copper Corp	3.44%
First Quantum Minerals Ltd	3.34%
Lundin Mining Corp	3.09%

NAV와 운용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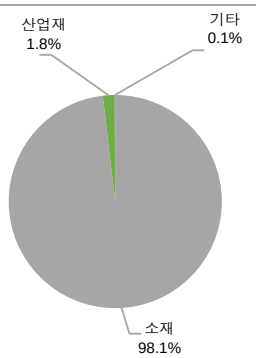
ETF 개요

VanEck Copper and Green Metals ETF (EMET)는 2021년 11월 상장된 ETF로, 청정에너지 전환에 기여하는 기술에 사용되는 금속 및 희토류 원소의 채굴, 정제 및 재활용에 관련된 글로벌 기업들의 시가총액 가중 지수인 the MVIS Global Clean-Tech Metals Index를 추종하는 ETF임. 기초 지수는 청정 에너지원 및 기술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금속 및 희토류 원소와 같은 녹색 금속을 채굴, 정제 또는 재활용하는 기업들을 포함함. 적격 기업은 녹색 금속에서 최소 절반의 매출을 창출하거나 개발 시 녹색 금속에서 최소 절반의 매출을 창출할 잠재력을 가진 채굴 프로젝트를 보유해야 함. EMET는 최소 25개 기업을 선정하고 시가총액 가중치를 적용하는데, 특히 집중 포트폴리오는 선정 대상 기업의 유동 시가총액의 90%를 커버하는 것을 목표로 함. 또한 위험관리를 위해 개별 기업의 비중은 최대 8%로 제한함. 분기별로 리밸런싱됨.

투자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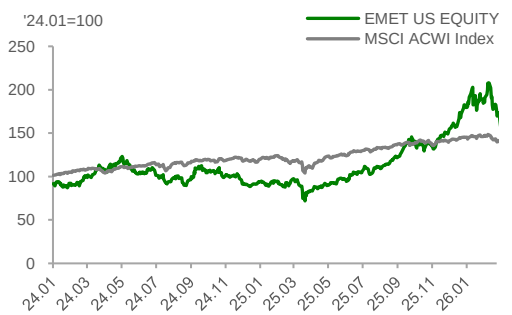
EMET는 글로벌 녹색 금속 시장을 포괄하는 최초의 ETF로 글로벌 구리 및 핵심 광물 생산 업체에 대한 유동적이고 다각화된 투자 기회를 제공함. 특히 최근 녹색 광물은 클린 에너지 관심 증가, 전기화 등으로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공급은 긴 리드 타임과 구조적 제약에 직면해 있는 상황임. 이에 녹색 광물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의 경우 투자 대안으로 검토해 볼 것을 추천함.

EMET의 업종 구성 비중



자료: Van Eck,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3.31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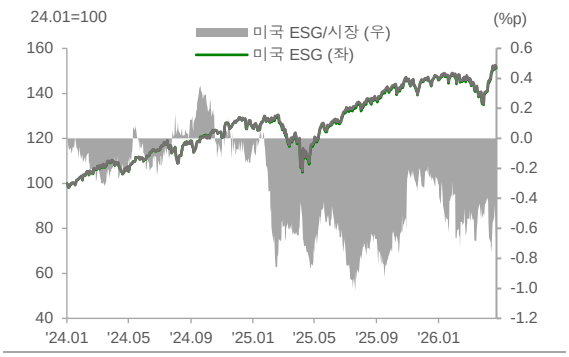
시장과 성과 비교 (MSCI World와 비교)



자료: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4.24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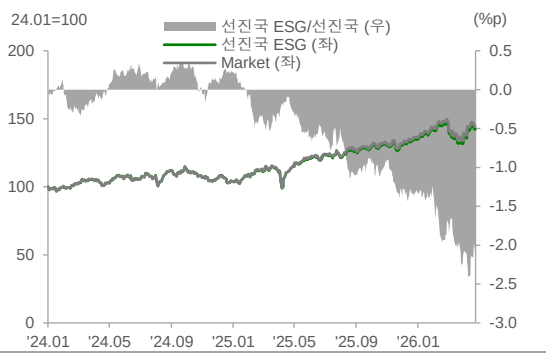
ESG 관련 DATA – 주요 지수 및 ETF의 성과 흐름

미국 주식 ESG (vs.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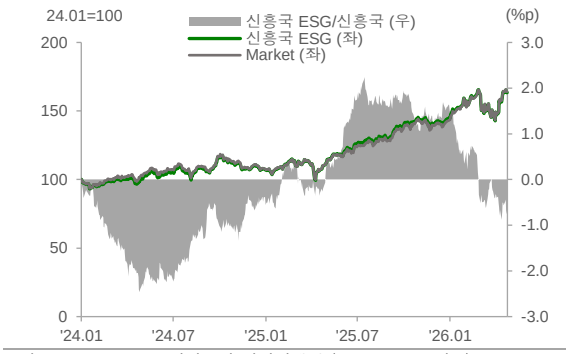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4.24 기준)

선진국 주식 ESG (vs. 시장)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4.24 기준)

신흥국 주식 ESG (vs.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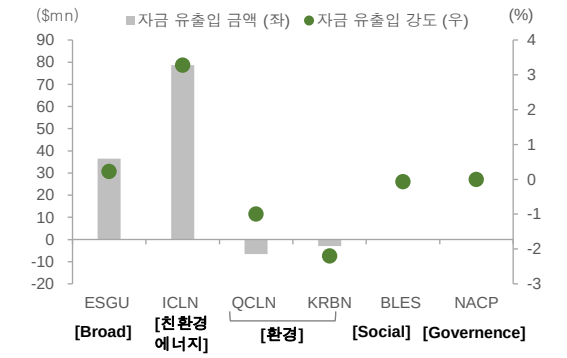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4.24 기준)

탄소배출권 가격 흐름 (EU E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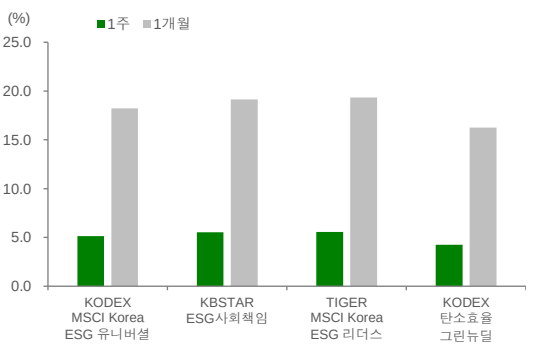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4.24 기준)

미국 상장 ESG ETF 유형별 1개월 자금 유출입 현황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4.24 기준)

국내 상장 ESG ETF들 성과 (1주, 1개월)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4.24 기준)

ESG 관련 DATA - 미국 상장 ESG ETF 현황

미국 상장 주요 ESG ETF의 현황

	구분	AUM (백만달러)	ETF 개수	AUM 비중	ETF 비중
1	Broad	89,906	60	76.1%	61.9%
2	친환경에너지/환경 기업	15,453	13	13.1%	13.4%
3	탄소효율 (Environment)	6,618	13	5.6%	13.4%
4	Social	5,667	5	4.8%	5.2%
5	Governance	420	3	0.4%	3.1%
6	기타	50	3	0.0%	3.1%
ESG 전체		**118,115**	**97**	**100%**	**100%**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4.24 기준)
주1: 미국 상장 ETF들을 전체 유니버스로, ETF 상품 개요 (description)를 기반으로 ESG 관련 키워드 검색 (ESG, Social, Climate, Carbon, Fossil, Environment, Clean, Solar, Green, Renewable, Sustain)을 통해 총 124개를 ESG 전략 기반의 ETF로 판단하였음
주2: 향후 키워드는 변경, 추가될 수 있으며, 정성적 판단 또한 ETF 분류에 반영하였음

미국 상장 주요 ESG ETF의 개요

구분	ETF	ETF	상장일	개요
Broad	ESGU	iShares ESG Aware MSCI USA ETF	2016-12-02	MSCI USA ESG FOCUS 지수를 추적하는 미국 최대의 ESG ETF
	ESGV	Vanguard ESG US Stock ETF	2018-09-20	FTSE USA All Cap Choice 지수를 추적
	SUSL	iShares ESG MSCI USA Leaders ETF	2019-05-09	MSCI USA ESG LEADERS 지수를 추적
	NULV	Nuveen ESG Large-Cap Value ETF	2016-12-14	MSCI TIAA ESG USA Large-Cap Value 지수를 추적
	NUSC	Nuveen ESG Small-Cap ETF	2016-12-14	MSCI TIAA ESG USA Small-Cap 지수 추적
	ESGE	iShares Inc iShares ESG Aware MSCI EM ETF	2016-06-30	신흥국 투자 ESG ETF
	ESGD	iShares Trust iShares ESG Aware MSCI EAFE ETF	2016-06-30	북미 제외 선진국 ESG ETF
	EAGG	iShares ESG Aware US Aggregate Bond ETF	2018-10-23	채권 ESG ETF 중 가장 큰 규모의 ETF
친환경에너지/환경 기업	ICLN	iShares Global Clean Energy ETF	2008-06-25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기업에 투자
	TAN	Invesco Solar ETF	2008-04-15	태양광 관련 기업들로 구성
	QCLN	First Trust NASDAQ Clean Edge Green Energy	2007-02-14	미국 상장 기업 중 클린에너지와 관련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투자
Environment	SPYX	SPDR S&P 500 Fossil Fuel Reserves Free ETF	2015-12-01	S&P500 기업 중 화석연료를 사용하거나 비축하지 않는 기업들에 투자
	CRBN	iShares MSCI ACWI Low Carbon Target ETF	2014-12-09	선진국, 신흥국의 라지캡, 미들캡 중, 매출 대비 탄소 배출량이 적거나, 가능성이 존재하는 기업들이 투자
	KRBN	KraneShares Global Carbon ETF	2020-07-30	탄소배출권 원자재에 투자하는 ETF
Social	BLES	Inspire Global Hope ETF	2017-02-27	대형주 (시가총액 50억 달러) 중 성서적인 (Biblical) 측면에서 사회, 환경, 거버넌스 부분을 측정하여 투자
Governance	SHE	SPDR SSGA Gender Diversity Index ETF	2016-03-08	시가총액 상위 기업 중 임원과 이사회 구성하는 여성 비율을 고려, 상위 기업에 투자
	NACP	Impact Shares NAACP Minority Empowerment ETF	2018-07-18	소수 인종의 권익을 중시하는 기업들에 투자. 비영리의 ETF로 운용수익은 NAACP (전미유색인종지위향상협회)에 기부됨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ESG 관련 DATA - 주요 ESG ETF의 성과와 자금 유출입

해외 – 미국 상장 주요 ESG ETF의 현황

구분	ETF	운용규모 ($mn)	수익률 (%)				자금 유출입 ($mn)		자금 유출입 강도 (%)	
			1주	1개월	3개월	6개월	1개월	2026 YTD	1개월	2026 YTD
Broad	ESGU	16,309	0.25	9.02	3.04	4.51	36	146	0.2	0.9
	ESGV	12,406	0.31	10.89	2.69	3.87	105	136	0.8	1.1
	SUSL	1,058	-0.13	9.22	0.84	4.54	-6	0	-0.5	0.0
	NULV	2,014	-0.42	6.21	3.48	8.52	12	-46	0.6	-2.3
	NUSC	1,289	-0.18	8.76	2.76	7.98	25	-89	1.9	-6.9
	ESGE	6,602	0.17	11.07	7.14	13.27	-72	197	-1.1	3.0
	ESGD	11,230	-2.08	7.21	1.41	6.56	-39	-284	-0.3	-2.5
	EAGG	4,716	-0.26	0.82	-0.51	-1.51	19	335	0.4	7.1
친환경에너지/ 환경 기업	ICLN	2,400	2.40	8.31	8.75	18.72	79	101	3.3	4.2
	TAN	1,518	2.60	1.65	2.95	17.75	13	361	0.9	23.8
Environment	QCLN	654	4.52	17.71	11.12	21.65	-7	-16	-1.0	-2.5
	SPYX	2,572	0.10	9.34	2.81	4.43	7	-18	0.3	-0.7
	CRBN	1,068	-0.42	9.15	2.86	5.24	11	23	1.0	2.1
	KRBN	134	-3.08	5.05	-12.48	-8.42	-3	-25	-2.2	-18.9
Social	BLES	144	-0.46	7.57	3.97	9.30	0	0	-0.1	-0.1
Governance	SHE	294	0.64	8.91	3.07	6.99	0	-7	0.0	-2.3
	NACP	67	0.24	9.11	3.96	9.40	0	0	0.0	0.0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4.24 기준)

국내 상장 주요 ESG ETF의 현황

ETF	운용규모 (억원)	수익률 (%)				자금 유출입 (억원)		자금 유출입 강도(%)	
		1주	1개월	3개월	6개월	1개월	2026 YTD	1개월	2026 YTD
KODEX MSCI Korea ESG유니버셜	204	5.14	18.24	35.88	81.68	0.0	0.0	0.0	0.0
FOCUS ESG 리더스	78	3.63	17.01	25.13	44.69	-53.2	-53.2	-68.3	-68.3
KODEX 200ESG	1,138	4.94	18.74	37.09	85.48	65.6	165.8	5.8	14.6
KBStar ESG 사회책임	3,515	5.54	19.14	39.96	91.04	115.3	1,535.4	3.3	43.7
TIGER MSCI Korea ESG유니버셜	195	5.23	18.52	37.59	83.35	0.0	0.0	0.0	0.0
TIGER MSCI Korea ESG리더스	177	5.55	19.33	32.25	63.74	-12.9	-12.9	-7.3	-7.3
KODEX 탄소효율그린뉴딜	552	4.25	16.25	32.79	73.36	0.0	0.0	0.0	0.0
TIGER 탄소효율그린뉴딜	205	4.21	16.26	32.53	72.51	0.0	-18.5	0.0	-9.0
HANARO 탄소효율그린뉴딜	203	4.26	16.30	32.72	73.16	0.0	0.0	0.0	0.0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4.24 기준)
주: KRX 탄소효율그린뉴딜 지수 추종의 ETF들은모두 2021년 2월 4일 상장으로 2021년 YTD 자금 유출입은 상장 이후 흐름임

ESG News Clipping

기업 ESG 뉴스

E (환경)

(2026.04.13) 이베르드롤라, 태양광 지분 매각 중단…전력 가격 하락에 1조6000억원 거래 무산- Impact-on

1조6000억원 태양광 거래 멈췄다…전력 가격 붕괴 직격
발전에서 전력망으로…돈의 흐름 바뀐다

(2026.04.13) 세계 탄소 제거 구매량 90% 차지한 MS, 크레딧 구매 전격 중단 - Impact-on

데이터센터 폭증에 탄소 배출 23% 급증한 MS, 크레딧 구매도 멈췄다
MS의 갑작스러운 탄소제거 크레딧 구매 중단에 업계 "패닉"…
기존 계약은 유지
MS 빠진 탄소 제거 시장, 투자·정책 모두 암울

(2026.04.14) 델타, SAF 목표 삭제…항공업계 넷제로 전략 '흔들' - Impact-on

SAF 의존 전략 붕괴…넷제로 '목표→열망' 후퇴
공급 0.8%·가격 최대 12배…탈탄소 모델 자체 한계
"못 구해도 써야 한다"…규제와 시장 현실 충돌

(2026.04.15) EU 첫 수소환원제철 눈앞…스테그라, 14억유로 투자로 자금 위기 돌파 - Impact-on

스웨덴 재계 거물 발렌베리가 구원투수로…컨소시엄 구성해 자금 수혈
유럽 최대 그린수소 설비 설치 완료…EU첫 수소환원제철공장, 완공 향해 속도

(2026.04.17) 폭스바겐, EV 8% 줄었는데도 전면 배치…전동화 전략 안 꺾었다 - Impact-on

폭스바겐, EV 부진에도 '정면 강조'…글로벌 감소에도 전략 유지
전기차 유지하면서 PHEV 확대…전환 전략 이중화

(2026.04.17) 삼성SDI 헝가리 공장 환경 위반 논란…정권 교체로 리스크 커지나 - Impact-on

삼성SDI, 발암물질 수백 배 초과 의혹…오르반 정부는 사실상 묵인
헝가리, 야당 집권으로 환경 규제 강화 예고…한국 배터리 업계 촉각

(2026.04.20) 파산 위기 딛고 기사회생한 미 태양광업체 '수니바'…생산능력 5배 확대- Impact-on

파산 기업의 부활…생산능력 5.5GW로 확대
전력 수요 폭증·에너지 안보…태양광 투자 가속

S (사회)

(2026.04.15) "네슬레·까르푸는 전진, 나이키는 후퇴…EUDR, 공급망 선반영 시작 - Impact-on

"법 시행 전인데도 변화"…추적 시스템 급증
나이키는 약속 철회…12년째 침묵한 기업도
"규정 흔들면 EU 신뢰도도 흔들린다"

G (지배구조)

(2026.04.13) 엑슨 자회사 피소…유정 떠넘기기 구조, 회계 사기 쟁점으로 -Impact-on

청소 비용 33배 축소 신고… "610만달러 vs 2억달러"
노후 유정 떠넘기기 반복…파산으로 비용 전가
보증금으로 못 막았다…회계 리스크로 번진 구조

(2026.04.14) 룰루레몬 PFAS 조사…성분 넘어 '소비자 기대' 겨냥 - Impact-on

"기대와 달랐다"…마케팅이 조사 트리거 됐다
테스트 프로토콜·제한물질 리스트까지…전 과정 검증 책임 묻는다

정책 ESG 뉴스

ESG

(2026.04.15) 금융위 ESG 공시 로드맵, "주요국 대비 늦은 출발" 대안은 - ESG경제

"식품 폐기·토지·공급망 인권까지 공개…기업 공시 부담 확대
공시 경계, '우리 공장' 밖으로 이동
전력사, 원주민·공급망 리스크까지 공시 대상"

E (환경)

(2026.04.16) 테슬라 29억달러 장비 협상도 영향권…中 통제 검토에 美 태양광 제조 '병목' - Impact-on

"고효율 장비부터 막는다"…HJT 기술이 핵심 표적
테슬라 29억달러 협상 이후 움직임…미국 제조 전략 '병목' 부상
희토류→배터리→장비…통제 범위 넓혀온 중국, 한국도 촉각

(2026.04.13) 인도 철강, 감축과 증산 동시에 간다…'투트랙 전략' 가동- Impact-on

석탄 줄이고 가스·스크랩 확대…공정 전환 속도 낸다
생산능력 4억톤 확대…270조원 투자·공급망 재편 병행

(2026.04.13) 시민들은 중장기 감축목표 '상향' 원한다...감축경로는 조기감축 쏠림- ESG경제

감축목표 '상향 압력' 확인…글로벌 평균 39.1%·상회 35.8%
조기감축 77.9% 선택…속도 앞당기고 규제·지원 병행 요구
"답정너 공론화" 비판…설문·발제·정보 편향 도마 위

(2026.04.14) EU, 핵심 광물 공동구매 착수…중국 의존 낮춘다 - Impact-on

"중국 90% 장악"…EU, 공동 구매로 공급망 흔든다
CRMA 목표 가속…2030년 자립률 확대

(2026.04.15) 정치권 개입에 흔들린 탄소가격…EU ETS 개편 앞두고 변동성 확대 - Impact-on

정치 발언 하루 만에 7% 폭락…수급보다 빠른 정치 변수
EU·영국 격차 23유로…재연계 협상이 분수령
무료배출권 축소·재연계 협상 앞두고…탄소가격, 투자 신호에서 정책 리스크로

(2026.04.17) EU, 탄소크레딧 직구 제한 검토…기업 구매권 '중앙 배분'으로 재편 - Impact-on

2030년까지 감축분 5%를 해외 탄소크레딧으로
기업 직구매 대신 'EU 차원 기관'이 중앙 통제

S (사회)

(2026.04.16) CSDDD 적용 기업 첫 공개…삼성전자·현대차 등 한국 기업 7곳 '직접 규제권' - Impact-on

약 2900개 회사 담은 데이터허브 공개…본사 기준으로는 1500개 안팎
한국 기업 7곳 이름 올려…적용 대상 기업명 처음으로 한눈에 공개
법안 적용 대상은 소수의 초대형 기업…EU예상보다 적어

G (지배구조)

(2026.04.13) 제약·바이오 기업 공시 개편...투자자 이해도 높인다 - ESG경제

임상시험·신약개발 정보 복잡해 투자자 판단 어려움 지속
IPO 단계선 주요 가정·추정치, 상장 후엔 일정·리스크 공개
공시보다 낙관적인 보도자료 표현 수정해 정보 일치도↑

일반 ESG 뉴스

ESG

(2026.04.16) 기업 ESG 담당자 40% 법정공시 조기 도입해야...빠른 시행 선호 - ESG경제

국회ESG포럼 조사..즉시 법정공시 또는 1년 후 전환 선택
10조 원 규모 기업에선 조기 법정공시 도입 찬성 58% 달해
자사 공시 준비수준 42.5% "높다"… 금융위 판단과 온도차
스코프3 부담 여전...10명 중 6명, 2030년 이전 도입 요구

E (환경)

(2026.04.14) 에너지 지원책 쏟아지지만... "값 낮추면 절약 유인 꺾인다" - ESG경제

26개 OECD 국가서 에너지 지원조치 잇따라 시행
유류세·부가세 인하 등...일부 국가는 가격상한제 도입
OECD, "가격 신호 약해지면 수요 조정 늦어질 수 있어"

(2026.04.20) 가성비 배터리, 전 세계 전력망 삼킨다...비용 75% 급락에 '에너지판' 뒤집혀 - Impact-on

가격 75% 하락… "이제 가장 매력적인 전력 투자"
데이터센터·이란 전쟁이 수요 폭발 불렀다
석탄·가스 대체 현실화… "전력망 구조 바뀐다"
폼 에너지 등 '장주기 배터리' 혁신도 가속화

(2026.04.20) AI 도입한 의류업계, 과잉생산·반품 줄이는 '조용한 혁신' - Impact-on

"AI의 진짜 역할은 예측"…과잉생산 구조 흔든다
속도 vs. 지속가능성…AI가 풀지 못한 '경영 문제'

(2026.04.20) 탄소 묻으면 돈 된다…엑손·셰브론, 걸프코스트 CCS 경쟁 붙었다 - Impact-on

엑손모빌, 걸프코스트 CCS 허브 확대
셰브론·옥시덴탈 가세… '저장 용량' 경쟁
톤당 최대 85달러… '묻을수록 버는' 구조

(2026.04.13) 그린수소 수익성, 전해조가 아니라 '데이터 제어'에 달렸다 - Impact-on

농도 흔들리면 효율 무너진다…알칼라인 수전해의 구조적 한계
실시간 센서가 공정 바꿨다… '사후 대응'에서 '선제 제어'로

(2026.04.14) 보조금 삭감 및 오일머니 이탈…기후테크 기업의 생존전략은? - Impact-on

트럼프 행정부 지원 철회에 탄소제거·그린수소 사업 줄줄이 위태
연방 지원 공백 메우던 중동 오일머니…이란 전쟁으로 투자 '빨간불'
보조금 없이도 살아남는다… 경제성으로 승부 나선 기업들

S (사회)

(2026.04.16) 중복상장 6개월후 모회사 10% 하락... "일반주주 동의 의무화해야" - Impact-on

금융위·거래소 제도개선 공개세미나...주주간 이해상충 문제 심화
기업들, 과도한 규제 시 자회사 해외상장·M&A 위축 가능성 우려
이달중 거래소 규정안 마련...새 심사기준 도입해 이르면 7월 시행

Compliance Notice

■ **투자등급**

종목
- **매수** : 향후 12개월 동안 추천일 종가대비 목표주가 10% 이상의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
- **중립** : 향후 12개월 동안 추천일 종가대비±10% 이내의 등락이 예상되는 경우
- **매도** : 향후 12개월 동안 추천일 종가대비 목표주가 -10% 이하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산업
- **비중확대** : 향후 12개월 동안 분석대상 산업의 보유비중을 시장비중 대비 높게 가져갈 것을 추천
- **중 립** : 향후 12개월 동안 분석대상 산업의 보유비중을 시장비중과 같게 가져갈 것을 추천
- **비중축소** : 향후 12개월 동안 분석대상 산업의 보유비중을 시장비중 대비 낮게 가져갈 것을 추천

-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로,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발간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의 계좌로 동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의 작성 담당자는 자료에 게재된 내용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자료는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한 투자참고 자료로서 향후 주가 움직임은 과거의 패턴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자료의 괴리율은 감자 등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반영하여 계산하였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당사의 투자의견 비율 고지]

당사의 투자의견 비율			
기준일(20260331)	매수 : 88.13%	중립 : 10.63%	매도 : 1.25%

[당사와의 이해관계 고지]

종목명	LP(유동성공급자)	시장조성자			1%이상보유	계열사 관계여부	채무이행보증	자사주신탁 계약
	ELW	주식	주식선물	주식옵션				
SK이노베이션	-	-	-	-	-	-	-	-

SK이노베이션 : 과거 2년간 투자의견 및 목표주가 변동내역

추천일자	투자의견	목표주가(원)	괴리율(%)	
			평균주가	최고(저) 주가
2026-04-27	매수	140000		
2026-01-29	매수	140000		
2026-01-26	매수	130000	-15.5	-14.23
2025-11-03	매수	160000	-30.12	-20.94
2025-05-02	매수	130000	-18.96	5.38
2025-03-26	매수	160000	-37.47	-23.81